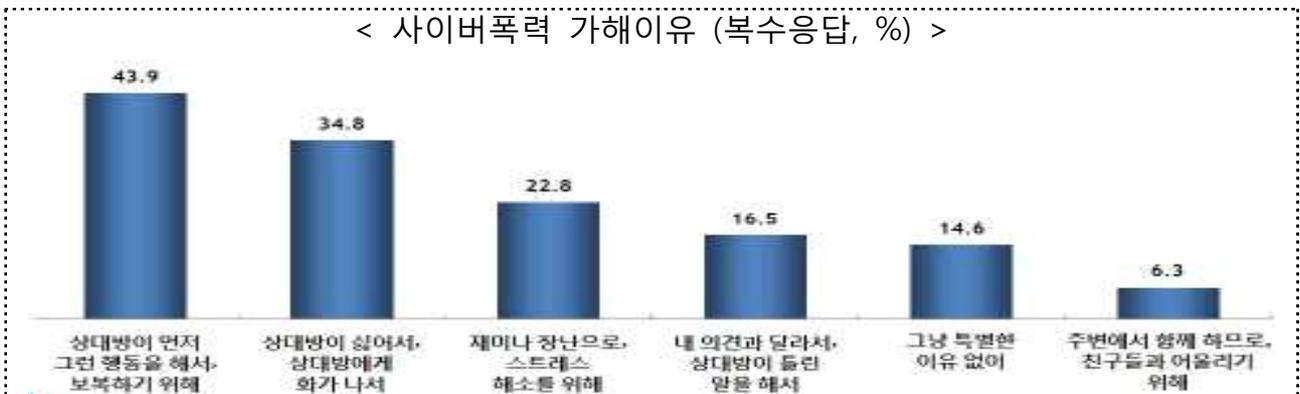


분 야	서비스		
제 목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르게 쓰자는 취지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신설(연간 5만 명 대상, 연인원 15만 ~ 20만 명)
  - 정부3.0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신설
  - 교육 전-후 부모·자녀간 이용행태 변화를 관찰하고 실천노트를 작성하여 **가정 내 변화상과 행동양태 추이를 분석**. 향후 가정 내 인터넷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 이밖에도, 유아·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연중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 8월말 현재 교육 인원 : 24,201명

## □ 추진배경

- 인터넷 및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악성댓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피해 증가**
  - ※ 청소년의 17.5%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남학생 24.3%, 여학생 11%)이 있으며, 17.2%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남학생 19.6%, 여학생 1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변모하면서 청소년 대상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 부각
    - ※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이유는 보복성 폭력(43.9%),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34.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2.8%), 의견상이(16.5%), 특별한 이유 없이(14.6%) 등 사이버폭력 피해의심 각성을 인지 못하고 직접적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 출처 : 201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유아·초등학생·장애 청소년(중·고생) 및 교원 등 대상별로 14개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과정을 운영 ('16. 8월말 현재 교육인원 : 약 2만 4천 명)

-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 바른인터넷 유아학교(유아), 인터넷 윤리 교실(초등), 인터넷 리더러시(장애청소년), 교원대상 연수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성과(교육 인원수) >

구분	2013	2014	2015	2016. 8월
유아 대상	6,907	6,876	13,447	6,956
초등학생 대상	36,604	36,003	50,451	11,942
장애 청소년 대상	263	281	250	83
교원 대상	3,765	5,409	6,394	921
계	47,539	48,569	70,542	19,902

- (한국인터넷드림단 구성·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인터넷드림단” 확대 운영

※ 초등학생 대상 한국인터넷드림학교의 자체 동아리로서 인터넷윤리 소양 교육, 학교별 캠페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한국인터넷드림단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개교)	학생 개인별 신청·모집		269	280	281	248	300
드림단원(명)	831	2,853	5,332	8,391	8,460	5,948	6,076

⇒ **학교·학생중심의 기존 교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내 인터넷 윤리교육으로의 변화 시도**

○ 인터넷 윤리교육의 커리큘럼·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책수요자(국민)와 전문가 및 학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 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개발 추진 ('16. 4월~)

- (국민디자인단 의견 수렴) 정책수요자(국민)와 전문가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 및 인터넷 윤리교육 체질 개선

< 국민디자인단 구성 현황 >

구 분	성명/소속/직위	역할	
서비스디자이너	정진환 실장 (Design SSAM)	· 서비스디자인 방법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	
	김현성 팀장 (한국능률협회)		
국민	분야 전문가	이광석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연구원, 관련단체 등으로 해당 정책관련 전문 지식 제공
		김양은 교수 (건국대학교)	
	시 민	박종선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책수요자 입장의 관점 및 아이디어 제시 등
		김민 책임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영환 교사 (평택안일초등학교)	
		배은주 교사 (공향중학교)	



- (학교 교사 의견 수렴) 학교에서의 인터넷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가정에서의 인터넷 윤리교육도 중요하다는 교사들의 의견 반영



## □ 주요성과(결과)

### ○ 부모와 자녀(유·초등)가 함께 참여하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신설·보급확대

※ 과거 우리 조상들이 밥상머리에서 가르침을 준 것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바르게 쓰기 등과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온 가족이 참여하도록 접목시킨 프로그램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형화된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는 독창적 체험형 윤리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 기존에는 학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었음

### ○ 특히, 정부부처 등에서 추진한 유사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과는 달리

- ① 교육은 물론 ② 교육·전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③ 가정 내 변화상을 비교분석하는 등 단계별 추진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 난이도에 따른 교육단계 주요 내용 >

- (1단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EBS 뉴스 보도)



학부모대상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EBS 방송분(7.27)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천하는 가정

- (2단계) 교육 전·후 부모 자녀 간 이용행태 변화 관찰 및 실천노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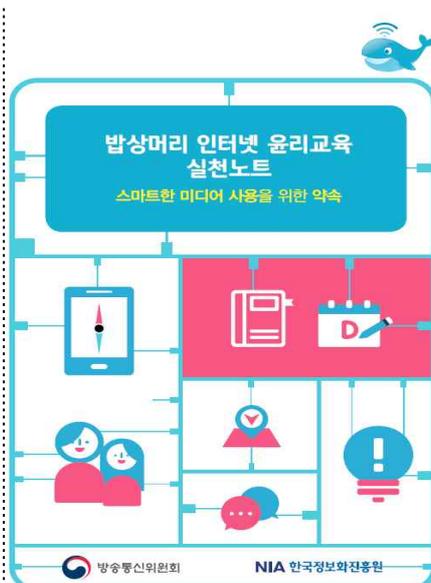
< 실천노트 구성내용 >

**o 1주차**

- 밥상머리 역할 정하기
- 밥상머리에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기
- 스마트폰의 좋은점, 나쁜점은 무엇일까요?
- 인터넷·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놀 수 있을까요?

**o 2주차**

- 인터넷·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바른 용도는?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인터넷·스마트폰사용 시 바라는 것은?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 가장 염려되는 것은?



- (3단계) 실천노트와 설문서 작성을 통한 교육 전·후의 가정 내 변화상과 행동양태 추이 분석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자녀행동추이 변화조사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2016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학부모님들이 2016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자녀에게 시행하시기 전에 자녀분들의 현재 인터넷 이용 실태와 인터넷 윤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7월

**NIA**  
주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질문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용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초등학교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고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인적 사항

자녀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자녀 학교명				자녀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성명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    )세			응답자 연락처		

#### Part A. 자녀의 인터넷 이용 현황

문1)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4시간	⑤ 4시간~5시간	⑥ 5시간 이상

- (4단계) 향후 가정 내 인터넷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 5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이를 가정 내에서 실천할 경우 약 15만 명(3인 가족 기준)으로 확산 가능

○ 우수사례가 실제 적용된 사례(요약)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윤모씨는 2016. 7. 19 이문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방통위 주관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듣고 “지금까지 바쁘거나 피곤할 때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스마트폰을 주곤 했었는데, 이럴 때에도 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실천노트 작성 등 오늘 교육에서 들은 내용을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볼 것”이라고 했다.
  - 한국인터넷드림단 지도교사 협의회(8.11)에서 제기된 내용 중 일부 발췌
    - (경기 양감초등학교 임모 교사) “방통위의 인터넷 윤리교육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이후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
    - (부산 대신초등학교 이모 교사)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함께하는 인터넷윤리교육이 중요하다“
- ⇒ 학교 현장과 일선 교사·학부모들의 반향이 크고, 특히 최근에는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CEO)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는 등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

○ 기관장 홍보활동 강화

- 언론 기고(6건), 보도자료(10건)

< 언론기고 >

- ① 신뢰와 소통의 인터넷, 디지털 복지사회 출발점(3.8, 매일경제)
- ② AI에 환호만 할 수 없는 이유(4.1, 서울경제)
- ③ 사이버 방관자에서 사이버 지킴이로(5.17, 동아일보)
- ④ 밥상머리선 스마트폰 고고, 오감을 켜자(6.10, 중앙일보)
- ⑤ ‘팝콘브레인’을 경계하자(7.18, 머니투데이)
- ⑥ 여름방학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하자(7.20, 디지털타임즈)

매일경제

2016년 03월 08일 화요일 A34면 분석과전망

기고

신뢰와 소통의 인터넷, 디지털 복지사회 출발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4월 네팔 대지진과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했을 때 SNS에서 'Pray for Nepal' 'Pray for Paris'와 같은 수많은 애도 문구와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단 우리나라 네티즌뿐만 아니라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조음하면서도 결연한 이 행렬에 동참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며, 짧은 한마디의 말이나 사진 한 장으로도 가슴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감정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이 상당 그 이상으로 커진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46.4%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높아졌으며, 특히 전년가지 필수 매체로 인식되었던 TV(44.1%)보다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큰 변화다. 나아가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련 다양한 통계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터넷은 디지털 공동체사회의 다양한 정보습득과 창의활동,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이용자 개개인으로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성장 이면에는 지나친 의존성과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업이 발생하는 역기능으로 인하여 손쉬운 디지털 공동체가 폐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음란물,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 사이버 폭력, 왜곡된 윤리 의식,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이르고 있다. 온라인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불법과 무책임이 난무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디지털 복지사회의 구현은 헛구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와 디지털 리더십 함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동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바른 어린이'를 주제로 한 '창작 동요제'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만든 교안에 대해 시상하고 활용하는 '교안 공모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소통과 인터넷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가칭)밤샘머리 인터넷윤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

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1일 출범하는 메경미디어그룹의 '2016 M클린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특히 'M클린, 가족과 함께 만드는 밝은 인터넷'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발선에 선 '2016 M클린 캠페인'은 소통과 신뢰의 선순환을 통해 배려·존중·책임감 등과 같은 공동체 가치를 인터넷 이용자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디지털 공동체의 시민인 우리들은 영향력이 매우 큰 인터넷 세상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구축하여 미래세대 대의 인간 존엄과 책임 윤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그 해악은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학계, 업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A39면 오피니언

기고

AI에 환호만 할 수 없는 까닭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각'이나 '~바바~'라는 단어(표기)가 유행이다. 전자는 '~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인정각: 인정할 만한 상황' 등으로 사용되고 후자는 '반박불가'의 초성만 사용한 단어(표기)로 소위 '휴먼급식체'의 하나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의 글꼴명인 '휴먼체'와 급식 청소년을 비하하는 '급식충'을 합성한 '휴먼급식체'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즉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투·문체로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사용됐으나 이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일상적인 대화로까지 확대돼 쓰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10~30대는 인터넷 이용률이 100%에 달한다. 인터넷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고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매체보다 커지게 됐다. 인터넷이 주는 다양한 편리성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위의 조사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도 80%에 달해 인터

넷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유아 및 초·중학생 때부터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 내용이나 심한 욕설, 왕따, 악성 댓글 인터넷 윤리문제 해결 못 하면 MS 채팅로봇 '테이' 사태 재연 초·중·고등학생 인터넷 지킴이 '드림단' 아름다운 웹세상 이끌 인재되길

등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급기야 자살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터넷상의 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 습관을 익히고 사이버 폭력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이 같은 상황 인식 아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아·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터넷 사회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을 배양하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교별 동아리인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15년 기준으로 3만2,000여

명의 드림단원을 배출했다. 올해에도 6,000여명의 드림단원을 선발해 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4월4일 첫걸음을 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과 함께 온라인 기자단 활동, 선플 달기, 부모님·선생님께 e메일 보내기 등과 같은 '지킴이 활동'과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토론회' '(가칭)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채팅로봇 테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곧 다가올 AI에 태연히 환호하고 박수만 칠 수 있을까. 인류의 행복을 위해 시작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그 미래상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6년 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래 인터넷 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터넷을 창의적으로 이용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작은 손짓들과 구슬방울 앞에 부끄러운 어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사이버 방관자’ 아닌 ‘사이버 지킴이’가 돼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키티 제노비스 피살 사건에서 유래된 이 말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주저하게 된다는 ‘방관자 효과’ 또는 ‘구경꾼 효과’를 뜻한다.

이런 제노비스 신드롬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으나 요즘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곤란이나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기느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뜨리는 사례도 있다. 일종의 변형된 사이버 폭력이다.

오프라인 제노비스 신드롬에 비해 사이버 폭력은 전파력이나 영향력이 커 더욱 심각하다. 단순히 자신의 욕구와 즐거움을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거나, 타인에 대한 신상털기 같은 사이버 폭력을 죄의식 없이 사이버 게임을 즐기듯 하는 사람이 문제다. 하지만 이런 것에 무감각해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로 직결된다.

그동안 정부나 인터넷 업계 등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고, 업계도 외형의 성장에 걸맞게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용자들 역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해 보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니, 우리의 미래가 인터넷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인터넷이 희망과 신뢰의 연결망이 돼 우리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사이버 방관자’가 아닌 ‘사이버 지킴이’로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밥상머리선 스마트폰 끄고 오감을 켜자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비즈 칼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오붓하게 식사를 해 본 지가 언제였던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머리를 가우뚱할 것이다. 이처럼 가족 간에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는 것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밥상머리에서 최소 예절만 가르쳐도 훌륭한 교육이 된다.” 조선의 명 재상 유성룡 가문의 밥상머리교육 가르침이다. 밥상머리 교육은 비단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케네디 가문이나 노벨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핵심 교육철학이기도 하다.

우리 선조들도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과 예절을 배웠다.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사회성을 기르

고, ‘밥상’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밥상머리교육을 잘못 운영하면 자칫 피하고 싶은 자리로 변질할 수도 있다. 정서적 교감의 자리가 아닌, 지적하고 훈내고 훈육하려는 자리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행복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0개국은 평균적으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2시간30여 분인데 비해 한국은 하루 평균 48분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하루 48분 중 식사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우리 선조와 명사들이 실천한 밥상머리 교육을 인터넷교육에 접목시켜 실천해보면 어떨까.

밥상머리교육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아이들의 말을 자르며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꾸중이나 질책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 1회 또는 특정 요일을 ‘가족 식사’의 날’로 정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 부처에서도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장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일찍 퇴근한 후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윤리 확산을 위한 범국민 대상 캠페인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2010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회 강연, 거리 캠페인, 체험 활동,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하다. 올하는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소통과 인터넷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이라는 사업을 신설했다.

밥상머리에서는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끄고 오감(五感, 시·청·후·미·촉각)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런 교육을 받은 날을 ‘가족식사의 날’로 정하고, 배운 내용을 자녀와 함께 식사하며 공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자녀를 비롯해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이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기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누구나 어린 적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엄마 손을 잡고 아빠를 기다리면서 상상속 나라를 펼쳐본 했다. 오늘은 혹시 행방을 사들고 오시지는 않을까. 장난감 선물을 갖고 오시지는 않을까. 정작 아빠보다 아빠 손에 들린 무언가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볼 일것도 없고 놀기 위해 아빠의 이른 퇴근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유아기부터 스마트폰과 친숙해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형이나 장난감 등과 같은 고전적인 놀이감에는 관심이 없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할 일대거나 다 큰 일로 바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가족

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겪는 부작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팝콘 브레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뇌는 상당한 강박한 수준이 아니면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스마트폰이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태어난 때부터 디지털기기에 노출되고 스마트폰 환경이 티브 세대에게 보다 능동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로써 올바른 사용습관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니 어른들이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만 책임 할 일이 아니

‘팝콘 브레인’을 경계하자

의식을 하거나 운전할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는 습관이 강해져서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순간 때 아이를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깨우치고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가 현재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접하게 시작할 아이들은 신기한 장난감에 같이 빠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수리를 시키고 때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엔 타인의 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소위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데이비드 레버 교수는 처음 언급한 ‘팝콘 브레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다중작업)를 반복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증후군은 단순하고 편한 일상에 흥미를 잃고 현실에 무관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단편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증상을 동반한다. 마치 팝콘이 튀면서 부풀어 오르듯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는 느리고 섬세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진다

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줄 아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 아이들의 생활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유아 대상 ‘바른인터넷 윤리교과서’를 비롯해 다양한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래밍을 경험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부터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젝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녀들이 스스로 ‘밥상머리 실천노트’(가칭)를 쓰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패턴을 살펴보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을 인터넷 윤리와 책임의식이 부재한 디지털 사회의 혼란한 수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우리 아이들이 한여름을 피아벳과 하강우를 즐기며 단란히 여름을 즐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의 숙수수 앞장서서 걱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포럼

여름방학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하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실제로 신나는 방학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방학은 그 자체로 ‘쉽’이고 ‘긴 호흡’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계의 태엽을 팽팽히 조이듯 긴장의 연속이기는 마찬가지다. 방학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학원가는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북새통이고, 어느새 아이들의 스케줄은 빠빠히 채워져 있다. 마치 어른들이 미하일 연대의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시간 도둑, ‘회색신사’에게 시간을 팔아버린 듯...

자녀도 자녀지만 부모님, 특히 엄마의 여름방학은 더욱 녹록지 않다. 아이의 뒤처진 교과 과목의 보충수업에다가 선행학습, 각종 체험활동, 스포츠 관리, 여기에 매 끼니를 챙겨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엄마 몫이다.

이렇게 자녀, 부모 할 것 없이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방학이지만, 올 여름방학 계획표에 빠져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 있다. 그 어떤 계획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여름방학 계획표에 반영할 프로그램으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맡 그대 ‘강추(강력추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여름 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은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쓰자는 가족 프로젝트다. 밥상머리에서는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끄고 ‘밥상’을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이용습관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이 운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

을 합쳐 가정 내에서 출전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밥상머리 실천노트(가칭)’를 쓰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행태의 변화를 관찰해 작은 변화라도 포착해 보려는 노력이다.

‘실천노트’는 구체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가족 서약서를 작성하고 밥상머리에서의 역할 정하기, 나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점검, 가족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의견 나누기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적으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우리가족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모습을 비교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녀들의 인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스마트폰, 친구 이상의 의미로 생활 속에 파고든 스마트폰, 단순히 이것을 못쓰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쓰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폰 과몰입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한 자세로 스마트폰 씹음을 되돌아볼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의 첫 단계로 전국 유치원의 3~5세 유아와 초등학생·학부모 등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인성교육의 첫 발을 내딛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범국민 인터넷 문화운동이 일회성 운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후의 자녀 행동양태 변화를 조사하고, 앞으로 가정 내 인터넷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바람직한 삶의 습관을 자리잡아 나가길 소망한다.

‘습관(習慣)’의 ‘습(習)’은 몸에 배어 스미도록 익히는 것을 일컫는다. 이 ‘밥상머리 실천노트’가 한 장 한 장 채워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소소한 변화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그 작은 실천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우리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기 때문에...

2016. 3. 11.(금)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3월 11일(금)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jmhview1@kcc.go.kr

**“인터넷을 소통과 신뢰의 매체로 사용해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2016 M클린 출범식 축하

2016. 4. 4.(월)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4월 4일(월)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jmhview1@kcc.go.kr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인터넷 꿈나무 육성**  
- 방통위, 「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 -  
- 16년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서 총 6,076명 선발, 다양한 활동 펼쳐 -

2016. 4. 27.(수)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4월 27일(수)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jmhview1@kcc.go.kr

**“사이버폭력 예방 위해 민·관 힘 합쳐야”**  
- 네티즌의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

2016. 6. 8.(수)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6월 8일(수)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jmhview1@kcc.go.kr

**인터넷윤리 상징 ‘웰리(Welly)’ 범국민 활용 선포**  
- 방통위, 「2016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 개최 -

2016. 6. 23.(목)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6월 23일(목)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jmhview1@kcc.go.kr

**방통위, 학교현장·아이들 눈높이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  
- 찾아가는 뮤지컬, 일선 교사 연수 프로그램 ‘알자’ -

국민행복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7월 18일(월)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방송통신국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제공일: 2016. 7. 18.(월)

**방통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본격 실시**  
- 자녀행동 변화 관찰 위해 ‘실천노트’ 작성 -

국민행복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7월 21일(목)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 장 (☎2110-1560)      제공일: 2016. 7. 21.(목)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노래로 꿈꾸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방통위,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 개최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노래 함께 불러요 -

국민행복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7월 24일(일)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장 (☎2110-1560)      제공일: 2016. 7. 22.(금)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인터넷과 함께 마음껏 놀자’**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 모듬별 미션해결을 통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국민행복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8월 15일(월)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 장 (☎2110-1560)      제공일: 2016. 8. 15.(월)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방통위, 「2016 인터넷윤리 교수·학습지도안 공모대회」 개최**  
- “생생한 학교현장 목소리 담을 것” -

국민행복

 방송통신위원회	<b>보도 자료</b>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9월 4일(일) 배포 시작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터넷윤리팀 박명진 팀 장 (☎2110-1560)      제공일: 2016. 9. 5.(월)  
인터넷윤리팀 정문호 사무관 (☎2110-1563)

**“하하호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당신의 손으로 시작해요.”**  
방통위, 2016 인터넷 윤리문화 창작 콘텐츠 공모  
- UCC·이모티콘·손글씨·포토톤·도고·슬로건 등 부문(9. 5 ~ 10. 13) -

## 참고자료

###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교육 현황

(단위 : 명)

교육 대상	형태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인원(단위: 명)					
			'13	'14	'15	'16.8월	합계	
유아동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인형극 공연 (방문형 예술체험형 교육)	6,907	6,876	13,447	6,956	34,186	
초등학교	한국인터넷드림학교 (인터넷윤리교실)	학급단위별 인터넷리터러시 교육	7,125	6,897	5,683	-	19,705	
	한국인터넷드림단	차세대 인터넷 리더 양성을 위한 학교별 자율 동아리	8,391	8,460	5,948	-	22,799	
	정규수업 (창의적체험활동)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3,805	3,617	14,683	1,363	23,468	
	순회특강	전문강사파견 학교 방문형 교육	17,283	17,029	24,137	4,503	62,952	
장애청소년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	장애청소년 인터넷리터러시	263	281	250	83	877	
중·고등학생	소셜리터러시	소셜미디어리터러시	-	4,404	3,853	-	8,257	
초/중/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체 교육	학급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63,801	59,171	2,658	6,567	183,776	
	강사파견 교육	사이버폭력예방 전문강사파견 교육			51,579			
	지역아동센터 강사파견 교육	지역사회 아동 대상 전문강사파견 교육	-	1,143	846	1,678		3,667
	사이버폭력 공연교육	학교방문형 공연교육	-	-	11,272	2,130		13,402
교원	인터넷윤리	인터넷윤리 온라인·오프라인 교원연수	290	2,588	2,235	393	5,506	
	사이버폭력	사이버 폭력 온라인·오프라인 교원연수	3,475	2,821	4,159	528	10,983	
여성가족부 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	601	-	601	
합 계			111,340	113,287	141,351	24,201	390,179	

□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4. 4. 화성 매송초등학교)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1)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2, 아이들과 함께)

□ 인터넷 윤리교육



위원장님 순회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연극 공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거리 캠페인